지상백고좌

반야불교연구원장 요산 지안 대종사

“큰마음을 가져라…크게 행하면 아플 일이 없다”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 들어서니 하얀 불두화가 눈부시다. 바람소리에 연초록의 잎들은 술렁이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청량한 법문을 들려준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요산 지안 대종사를 주석처인 반야암에서 친견했다. 지안 스님은 지난해까지 현대불교신문에 5년 넘게 〈능엄경〉 〈법화경〉 〈승만경〉 〈대승기신론〉 〈임제록 강설〉 〈선화의 향기〉를 연재했다. 어려운 경전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 쓴 글이라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먼저, 최근 근황에 대해 여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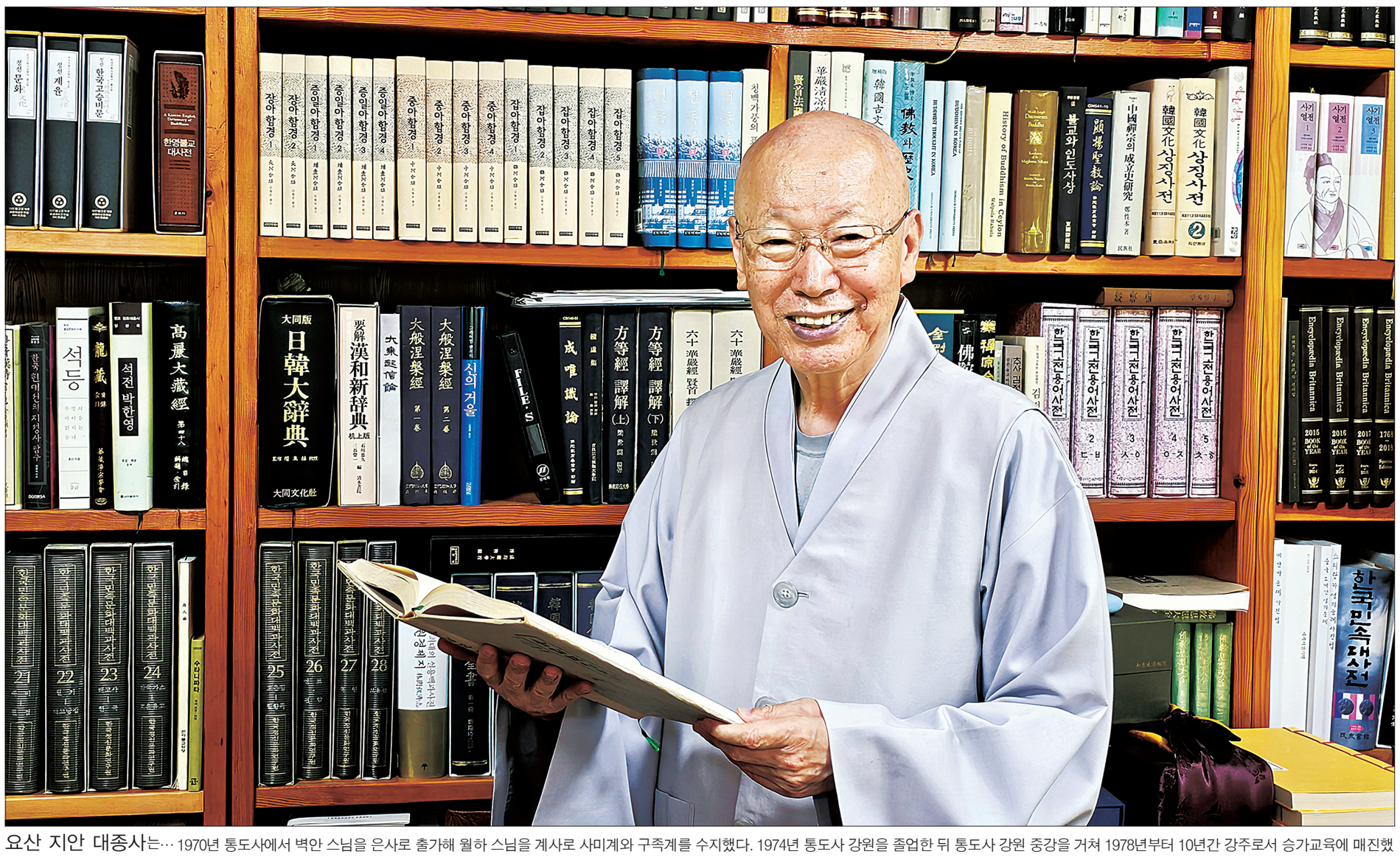
“오전에 반야암 주변을 포행하는데 날마다 변하는 산빛이 참 아름다워요. 〈법화경〉 출간을 위해 경전을 보거나 원고를 보고 있어요.” 짧게 근황을 이야기 한 뒤, 은사스님에게 받은 가르침을 여쭸다. 지안 스님은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 벽안 스님은 공사(公私)가 분명하여 실언이 없고, 평생 하심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법도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가장 청백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벽안문도회에서 은사스님을 추모하는 문집을 발간할 때 책의 제목을 〈청백가풍의 표상〉이라고 지었어요.”

지안 스님이 계를 받고 나서 은사스님께 인사를 드리니 “중 노릇을 잘하려면 금생에 네가 안 태어난 셈 치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했다. 스님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때로는 수행자인 스님들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나, 화가 날 때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 왔는데’라며 은사스님의 경책을 되새겼다. “은사스님의 말씀이 평생 경책하는 가르침이 되어 스스로를 조복하면서 하심하게 된다”는 지안 스님의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무한한 공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통도사에는 근현대 불교 선지식들이 많았다. 지안 스님이 계를 받은 월하 스님, 극락암에 주석하며 승풍을 진작한 경봉 스님 등등.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안 스님은 “어른스님들이 계서서 수행 가풍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고 술회했다.

“그때는 경봉 노스님, 월하 노스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어른스님들이 계셔서 수행 가풍에 대한 신뢰가 높은 분위기였어요. 어른스님들의 이름만 생각해도 뭔가 좋은 스님의 이미지가 되살아나고, 우리 스스로도 잘해보려는 의지가 생겼지요. 경봉 노스님께서 하신 법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요산 지안 대종사는…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뒤 통도사 강원 중강을 거쳐 1978년부터 10년간 강주로서 승가교육에 매진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와 역서로 〈왕오천축국전〉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마음속 부처 찾기〉 〈대승기신론강해〉 〈금강경 이야기〉 등이 있다.

부처님 말씀 ‘큰마음 가져라’ 가르침
본래 마음은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
크게 이해하면 오해하는 마음이 없어

내 자신과 세상 환히 밝히는 연등처럼
‘자리이타’는 밝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출가 후 지안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해마다 모시는 삼삼조사(卅三祖師) 다례재에 처음 참석했다. 삼삼조사(卅三祖師)는 인도의 28조(祖)와 중국의 혜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혜능 스님을 가리킨다. 당시 경봉 노스님께서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치고는 법문을 설했다.

“경봉 스님은 ‘오늘은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해 마쳤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법문은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메밥은 희고, 김은 검다’라는 한마디를 더 남기시더니, 주장자를 탕 탕 탕 세 번 치고는 법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당시 법문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경봉 노스님은 통솔하는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산중을 다스리는 노스님을 뵈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월하 노스님은 말없는 감화력이 있었어요.”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바로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소임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강주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강주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맡아달라고 하기에 맡게 됐다”고 말했다.

선방에서는 하루종일 앉아서 화두를 참구하듯이 감로당에서 공부하는 학인들은 사집반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루종일 책을 읽어야 했다. 어느 날 월하 스님이 “오늘은 왜 감로당 학인들의 책 읽는 소리가 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강사인 지안 스님이 “감로당 학인들이 울력을 가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 당시엔 학인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강사를 불러서 따질 만큼 후학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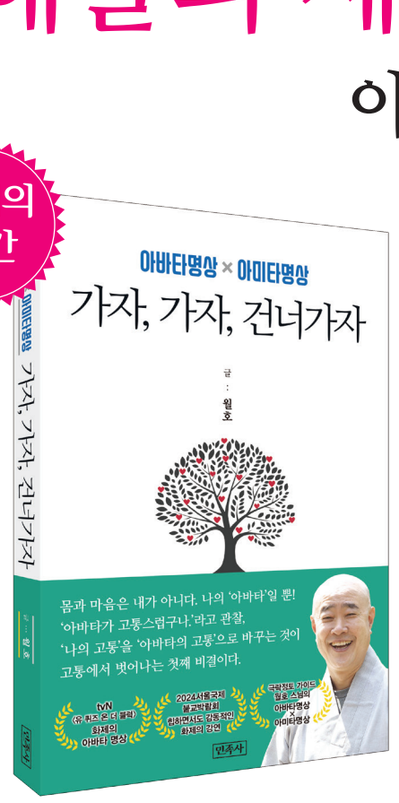
“학인스님들이 다 외워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예전엔 감로당에서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교과목도 개편되었고, 책 읽는 소리가 옛날처럼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변해가는 거지만 옛날의 절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면에 계속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극락정토 가이드북

아바타 명상을 통해 아미타 세계로 들어가자!

화제의 신간



사바세계의 윤회게임에 지쳐 해탈게임으로 판을 바꾸려면
사바를 로그아웃하고 극락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그 패스워드는?
“아미타바(Amitābha).

아바타명상 × 아미타명상을 통해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극락정토 가이드북.
아바타 명상은 노·병·사에 대한 응급처방이며
아미타 명상은 영원히 병고와 죽음이 없는
극락정토로 건너가는 것이다.
삶 속에서 훈련하기 좋은 실천 명상의 결정판!
글 월호 | 336쪽 | 18,500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아바타 명상
2024서울국제 불교박람회 힙하면서도 감동적인 화제의 강연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